

보도시점 2026. 3. 27.(금) 조간 < 2026. 3. 26.(목) 14:00 >

중기부, 앞으로 실시간으로 소상공인 통계 발표한다!

- 중기부-(주)한국신용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

-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공공-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할 계획
-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민간데이터 선도기관인 한국신용데이터와 소상공인 데이터 상호 공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주)한국신용데이터는 26일(목) 한국신용데이터(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행정 강화를 위한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관리 앱인 ‘캐시노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시간 매출, 비용 등 정보를 보유한 민간기업인 한국신용데이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데이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중기부-한국신용데이터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 : 2026. 3. 26.(목), 14:00 ~ 15:00
- 장소 :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빌딩 4층)
- 참석자 : 중기부 제2차관 이병권,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 등

그간 중기부는 소상공인실태조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국가 승인 통계를 발표했으나, 조사시점과 발표시점 간 시차**가 있어 적시성이 부족하고 정책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라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있었다.

* Business Survey Index

** (소상공인실태조사) 1년 이상 시차 / (소상공인 BSI) 1달 시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기부는 소상공인 관련 분산되어 있는 공공-민간데이터를 통합·구축하여 소상공인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재무 데이터 확보를 추진한다. 국세청 과세자료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정책 지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데이터회사와 협력하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대한 실시간 정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민간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와 달리 실시간 확보가 가능하여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통계의 데이터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DB를 통해 대상별 정책 정보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및 통계 거버넌스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 예시로, 이번 협약을 맺은 한국신용데이터와 함께 지난 3월 21일 광화문에서 펼쳐졌던 BTS 콘서트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의 매출 변화를 4월 중 발표하고, 상반기 중 26년 1분기 소상공인 매출 등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그간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관련 국가 통계는 정확성을 위해 사무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지만, 정책을 새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 시점의 경기 상황이나 정책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신용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 받고 시차를 최대한 줄여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세명 (044-204-7820)
		담당자	사무관	조무근 (044-204-7823)